**설정 - 태초의 신**

현재 인간들에게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인간들에게 신이라고 불렸던 존재들. 인간들이 오랜 기간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상상하며 원하자 태어난 존재들이다. 다만 태초의 신은 지금의 신과 같이 인간과는 다른 신이라는 종족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인간들에게 신이라고 불린 자들이다.

태초의 신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힘을 인지하고 각성하는 시기는 각자 달랐지만 인간과는 다른 힘을 드러낸 순간, 인간들에게 '신'으로 추대받았으며 동시에 두려움과 신앙심의 대상이 되었다.

태초의 신은 세 명으로 각각 세상의 세 분면인 과거, 현재, 미래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태초의 신들의 힘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대항할 수단이 없는 절대적인 힘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은 날이 갈수록 절대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 되어갔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과 귀족들은 태초의 신의 힘을 탐내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지위와 부를 이용하여 태초의 신들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려했다.

태초의 신 중 한 명인 크로테리아는 힘 없는 인간들을 학대하고 갈취하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편에 서는 것도 서슴치 않으며, 자신의 능력과 신이라는 절대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부를 쌓았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인 아트로는 태초의 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타인을 헤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힘 없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왕족들과 귀족에게 대항했다.

그러던 중, 크로테리아가 부를 쌓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약자들과 왕족, 귀족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죽인다. 아트로는 크로테리아를 막으려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강대해진 크로테리아의 힘에 의해 패배하게 된다. 아트로는 크로테리아를 멈출 방법을 구하기 위해 다른 태초의 신인 라케아스를 찾아간다.

라케아스의 도움을 받아 더 강해진 힘을 얻은 아트로는 크로테리아, 크로테리아와 손을 잡아 인간들을 멸하려던 아디오스, 라케아스와 자신의 아이인 다이몬을 미래에 봉인하고 인간들을 헤치지 않고, 보살피고 관장하는 현재의 신들을 창조한 뒤에 힘을 다해 소멸한다.